

김영록 지사 “순천대 글로벌 대학 지정·전남에 의대 설립을”

이주호 부총리 전남 방문...재정 지원 등 현안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7일 전남을 찾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순천대 글로벌대학 본지정,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또 지역의 강점 및 미래 전략산업을 연계한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와 글로벌대학 등 지역 협력이 필요한 교육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순천대의 글로벌대학 본지정 등 현안을 건의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는 대학 지원의 행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다. 지역 발전과 연계해 지역혁신, 산학협력, 직업·평생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지역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교육부 교육개혁 과제의 핵심축이다.

간담회에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지역대학 총장 등이 함께해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 정부와 지자체, 대학과 산업계가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남도는 지역의 주력·미래첨단 산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과 연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역 대학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 혁신과 발전을 이끌 주체”라며 “지자체, 대학, 산업계가 힘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의 강점 및 미래 전략산업을 연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는 인구절벽,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범정부 플랫폼으로서, 그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혁신주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도 우수 선도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교육 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7일, 전남도청 접견실에서 '교육개혁 특강 및 브런치 간담회'를 위해 전남도청을 방문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환담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강기정 시장 “폐지 수거 노인 지원금 검토”

광주시, 언론과 차담회

광주시가 폐지 수거 노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7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께 모자와 냉동시를 지급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며 “정의당이 요구한 ‘폐지 줍는 어르신 긴급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연일 극심한 폭염으로 운영질환자 발생이 늘고 있다. 특히 늘 그렇듯 이런 기후 위기는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곳에 먼저 닥는다”며 폐

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제도에선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현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관련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한 시의회의 협조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에는 야광 조끼, 반사경 등 보호 용품이나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장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현금 지원을 하려면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제·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올 여름 폭염에는 현금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독거노인 안부 일일이 확인

폭염 속 어르신 건강 지키기 총력

전남도가 도내 독거노인의 안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폭염 속 어르신들의 건강 지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복지사 3800여 명을 투입해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에 나섰다.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 식사 관리, 말벗, 청소관리, 위생관리, 전화 안부 등의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를 포함해 전남도는 경로당(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 등 ‘무더위 어르신 건강지킴이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르신이 전기료 부담 없이 언제든지 경로당에서 더위를 식히도록 9200여 모든 경로당에 개소당 30만원씩 모두 28억원을 지원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의 혹서기 안전관리 및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 기간인 7~11일 일시 중단한다. 이후 폭염 상황에 따라 무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까지를 가급적 피해 활동하도록 일자리 활동 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미래 실감콘텐츠 인재 양성’ 교육 첫선

‘GCC 아카데미’ 입문 12강 온라인 제공...누리집에서 무료 수강 걸그룹 ‘에스파’ 아바타 제작한 수도권 기업 ‘사이언트스텝’ 강사진 강의

광주시가 미래 실감 콘텐츠 분야의 융합 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선보인다. 특히 SM 걸그룹 ‘에스파’의 가상 아바타 등을 제작한 국내 실감 분야 대표기업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첨단 실감콘텐츠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인재 교육과정 ‘GCC(Global Content Creative) 아카데미(가칭)’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일반인과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인재들을 대상으로 입문강의 12강을 온라인으로 시범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 주제는 ‘버추얼스튜디오 활용 및 운영’이다. 버추얼(Virtual) 스튜디오는 대형 엘디(LED)스크린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그래픽을 연출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내에 구축돼 있는 최첨단 가상제작스튜디오(VX, MX, MR) 등이

해당된다.

주요 내용은 버추얼스튜디오 화면·장비의 실무 활용사례와 실제 혹은 가상을 배경으로 하는 영상을 스튜디오 스크린에 시연하고 촬영하는 기법(버추얼프로덕션) 등 모든 콘텐츠 제작 과정을 소개한다.

이번 교육 강사진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최신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현장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SM 걸그룹 ‘에스파’의 가상 아바타 등 영상 시각특수효과(VFX)·인공지능(AI) 가상인물·리얼타임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수도권 실감 분야 선도기업 ㈜사이언트스텝의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강의는 ‘GCC 아카데미’ 시범운영 누리집(<http://www.gccaca.kr>)에서 회원 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후속 온라인 강의는 연말부터 3개 분야(실감,

애니/웹툰, 게임) 총 300개 강좌가 순차적으로 해당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GCC 아카데미’의 오프라인 교육과정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육생을 모집한다. 2024년 1분기 개강을 목표로, 기존 문화콘텐츠 분야에 최신 기술을 가미한 첨단실감콘텐츠 중·고급 인재양성 커리큘럼을 7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과정·중고급과정·메이커톤(평가), 팀프로젝트(실무) 등으로 이뤄진 오프라인 교육 과정에 이어 수도권·지역 콘텐츠기업과 협업한 기업프로젝트(인턴십) 과정 등을 운영해 교육수료 후 취·창업 지원까지 돕는다.

교육과정은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를 최초 기획한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며, 광주의 인공지능 전문 인재양성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노하우를 통해 실감콘텐츠 분야 명품 강사진 및 커리큘럼을 준비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무인력 미스매칭 해소에 나서는 등 광주 콘텐츠가 현재 급성장 중인 실감콘텐츠 분야를 주도하는 아이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양대체전 자원봉사자 4000명 교육

전남도가 오는 10월과 11월에 개최하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 활동할 자원봉사자의 기본교육을 오는 28일까지 40여일간 실시한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총 4000여명으로, 교육은 경기가 분산돼 개최되는 각 시·군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체전 개요, 고객응대(CS), 장애 이해,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 기본교육과 선수와 관람객에게 친절하고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주는 소양교육으로 이뤄진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과 처치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시연해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체계적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매뉴얼을 제작하고, 리더교육을 8월중 실시하며, 9월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발대식을 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사회의 책임감과 일체감을 다지자”고 주문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